

## 알제리 이동통신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

### 1. 최근 동향

#### □ 연평균 50% 이상의 높은 성장세 지속

- 알제리의 이동통신시장은 견실한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소득 증가,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,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규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.
- 2000년 8월,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 자유화를 도입한 이래 2001년부터 이집트의 Orascom Telecom(OT)과 쿠웨이트의 Wataniya Telecom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규모가 지속 확대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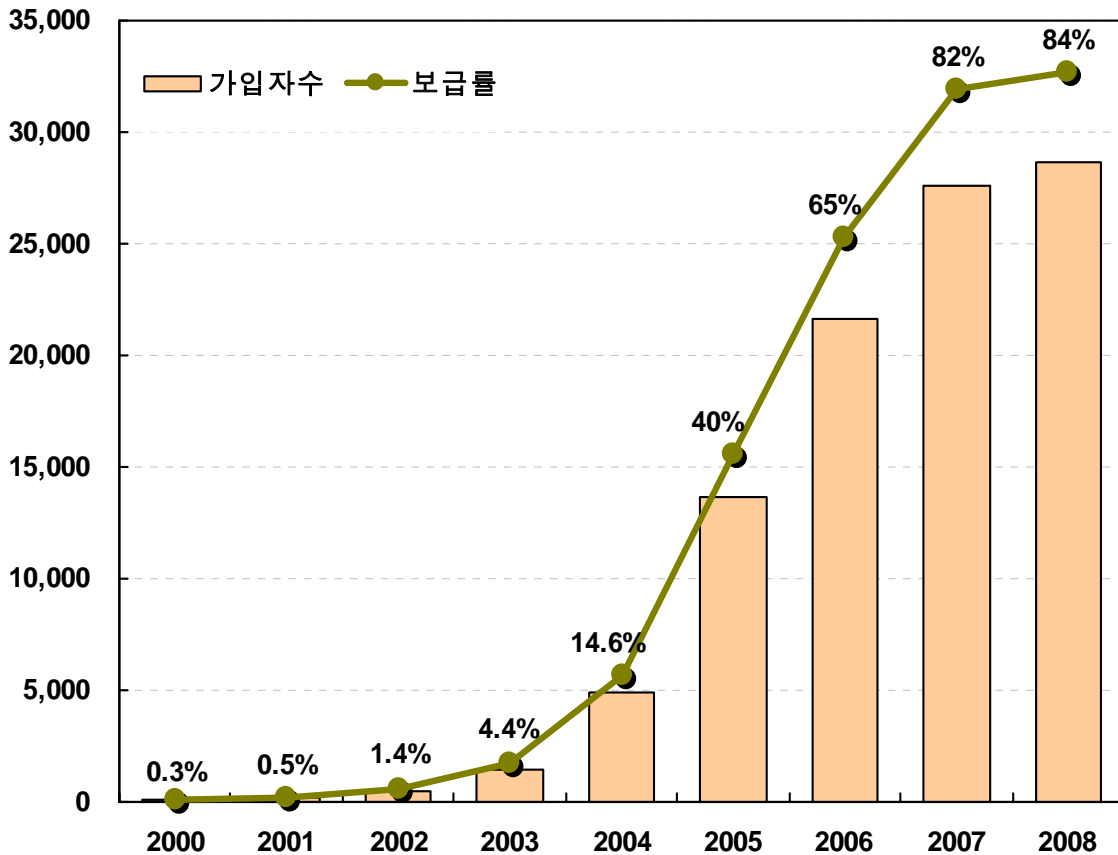
#### < Law of 2000(No. 2000-03) >

- 알제리 정부는 2000년 8월, 우정통신부(MPT)와 통신시장을 개혁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. 동 법안은 그동안의 정부 독점체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.
  - 우편과 정보통신 분야의 분리
  - Algerie Telecom(AT)의 설립
  - 규제기관(Posts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: ARPT) 설립
  - 정보통신 시장의 자유화

- 이에 따라, 2001년 약 2백만명에 불과하던 알제리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2008년 약 3천만명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, 보급률 또한 2001년 0.5%에서 최근 85%까지 치솟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- 이는 주변국가의 보급률 튀니지 약 76%, 모로코 64%, 이집트 41% 등과 비교해 볼 때, 북부아프리카에서도 높은 수준임.
- GDP: 854억 달러('04) → 1,173억 달러('06) → 1,556억 달러('08)
- 1인당 GDP: 2,652달러('04) → 3,555억 달러('06) → 4,604달러('08)

<그림 1> 알제리 이동통신 가입자수 및 보급률 추이('00-'08)

(단위: 천명)



자료: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.

□ **Djezzy, Mobilis, Nedjma 3개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구도**

- 알제리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Djezzy(Orascom Telecom), Mobilis(Algerie Telecom), 그리고 Nedjma(Wataniya Telecom) 3개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으며, 저가 휴대폰 시장, 선불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음.
-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Djezzy가 52.9%(1위), Mobilis가 28.5%(2위), Nedjma가 19.3%(3위) 순임(2008년말 기준).

**2. 주요 이동통신 기업의 현황**

□ **Algerie Telecom (Mobilis)**

- Mobilis는 알제리 국영기업인 Algerie Telecom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2008년말 기준, 업계 2위(28.5%)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. AT는 그동안 알제리의 최초 이동통신 기업으로서 시장을 독점해왔으나, 2001년부터 시장이 자유화되면서 Djezzy, Nedjma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Djezzy에게 주도권을 잃고 2위로 밀려난 바 있음. 이는 무엇보다도 Djezzy의 선불 서비스 제공 전략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데에 기인함.
- 알제리 정부는 2008년부터 Algerie Telecom의 민영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며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, 세계 경기침체 여건, 최고 경영자인 Moussa Benhamadi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민영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.

□ **Orascom Telecom Algeria (Djezzy)**

- Djezzy는 이집트의 Orascom Telecom Algeria(OTA)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로서 2008년말 기준 업계 1위(52.9%)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. 2002년 2월 시장에 진입한 Djezzy는 진입 6개월 만에 알제리에서

최초로 선불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면서 가입자수를 확보해왔음.

- OTA는 2008년까지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3,700명의 임직원과 70여개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한 알제리 내 가장 큰 외국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음.
- 업계 조사에 따르면, 알제리 이동통신 사용자의 약 97%가 후불제(postpaid) 보다는 선불제(prepaid)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□ Wataniya Telecom (Nedjma)

- Nedjma는 쿠웨이트 국영기업인 Wataniya Telecom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로 2004년 8월 알제리에서 3번째로 GSM망 허가를 받은 기업임. Nedjma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말 기준 19.3%로 업계 3위에 달하나, 알제리에서 최초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(Multimedia Messaging Service: MMS)를 제공하는 등 멀티미디어 분야의 선점을 통해, 가입자수가 연평균 60%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.

<표 1> 공급자별 가입자 현황(2008년 1분기 기준)

공급자	시스템	사업개시	가입자 (백만명)	증가율
Mobilis(Algerie Telecom)	GSM	1999년 2월	10.2	26%
Djezzy(Orascom Telecom)	GSM	2002년 2월	13.8	22%
Nedjma(Wataniya Telecom)	GSM	2004년 8월	4.7	60%

자료: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(2008)

## 3. 향후 전망

### □ 저가 휴대폰 시장의 활성화로 가입자수는 지속 확대될 전망

-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알제리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보급률이 약 85%까지 이르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, 아직까지 이동통신이 보급되지

많은 저소득층 고객을 겨냥한 저가 휴대폰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, 가입자수는 견고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
- 호주의 통신 산업 조사기관인 Budde Communication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동국의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현 28.7백만명 수준에서 2010년 33 ~ 35.5백만명, 2015년에는 34 ~ 37백만명까지, 보급률은 현 85% 수준에서 2015년에는 90 ~ 100%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#### □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추가적인 개혁 불가피

- 알제리의 이동통신 산업이 가입자수 및 보급률 측면에서 튀니지, 모로코 등 주변국가 대비 월등한 것으로 분석되나, 아직까지 시장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국영화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.
- 다보스(Davos) 경제포럼에서 발간한 ‘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’에 의하면, 알제리는 ICT(Information & Communication Technology) 경쟁력 분야에서 전년 대비 20 단계나 하락한 108위(총 138 개국 중)를 기록하였음.
- 그동안 알제리 정부가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 자유화를 도입 하는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, 유선통신 시장에서 민간기업인 라콤(Lacom)이 국영기업인 AT와의 가격경쟁에서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아직까지 국영기업의 독과점 체제 과다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.
-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영기업의 주권 아래 개발, 운영되던 고정 틀에서 벗어나,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시장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전문연구원 김예리(☎02-3779-6686)  
[yeliekim@koreaexim.go.kr](mailto:yeliekim@koreaexim.go.kr)

인턴행원 김지희(☎02-3779-5325)  
[1822@koreaexim.go.kr](mailto:1822@koreaexim.go.kr)